



3번 장성호



4번 나지완



5번 최희섭

KIA ‘다이너마이트 타선’ 재건

‘클린업 트리오는’ 장성호·나지완·최희섭 연일 홈런 폭발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5-4 롯데에 역전승

KIA타이거즈가 이를 연속 홈런쇼를 펼쳐 다이너마이트 타선 재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KIA는 16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시범경기에서 나지완과 장성호가 연속으로 터뜨린 백투백 홈런을 바탕으로 5-4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전날 경기에서 최희섭과 연타석 홈런을 장식했던 나지완은 이날 파타너를 바꿔 이를 연속 괴력을 발휘했다. 기선은 KIA가 잡았다. 2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5번 지명타자 최희섭이 우익수 라인에 떨어지는 깨끗한 2루타를 터트렸다. 이어 이현곤이 볼넷으로 출루했으나 김정수의 3루 땅볼로 아웃되면서 1사 1, 3루, 8번 타자 송산이 삼진으로 돌아하면서 2사에 김선빈에게 기회가 왔다. ‘날쌘돌이’ 김선빈은 우중간을 가르는 시원한 3루타로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여 2-0으로 앞서나갔다. 롯데는 4회 선두타자 조성환이 윤석민을 상대로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뽑아

내며 반격에 나섰다. 다음 타자 이원석이 2루수 김선빈의 실책으로 살아나가면서 무사에 1, 2루. 윤석민은 1사 정수근의 타석에서 연속으로 투수보크와 에러를 기록하면서 1점을 내줬다. 5회에도 선두타자 정보명에게 2루타를 허용하는 등 1점을 더 내주었다. 고관절 부상으로 이날 처음 마운드에 올랐던 윤석민은 5이닝 동안 25명의 타자를 상대로 피안타 5, 사사구 4개를 내주며 2실점하고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8회 동점의 균형이 무너졌다. 롯데의 선두타자 이원석이 윤석민-문현정-유동훈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이동현에게 볼넷을 얻은 뒤, 이승재의 중전안타와 이승화의 2루타로 1점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KIA는 발데스의 기동성을 앞세워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최희섭과 땅볼, 플라이 아웃으로 베이스를 밟지 못했던 발데스는 선두타자로 나선 8회말 볼넷으로 출루한 뒤 다음 타자가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2루에 질주해

도루를 추가했다. 이종범이 2루 땅볼로 물러난 사이, 3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4번 타자 나지완이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투수 최대성의 빠른 직구를 엮두에 두고 타석에 들어선 나지완은 초구에 커다란 홈런 파울을 그린 뒤, 다음 149km의 직구를 끌어올려 우중간을 넘기는 역전 투런포를 만들었다. 역전의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최희섭 대신 타석에 들어선 장성호가 초구를 우측 담장으로 넘기며 연타석 홈런을 기록했다. 등 근육 통증으로 고생했던 장성호는 이날 경기에서 컨디션 점검차 타석에 들어선 뒤 2번째 타석만에 홈런을 기록하며 부상 탈출을 선언했다. 전날 시범경기에서 첫 홈런을 친 최희섭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최희섭은 이날 2회 첫 타석에서 우월 2루타를 날린 뒤, 6회에도 우중간 안타를 쳐 세 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10타수 6안타(홈런 1, 2루타 2) 0.600의 타율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동안 우타자 거포로 고민해오던 KIA는 신인 나지완의 거침없는 홈런쇼를 바탕으로 2008시즌 ‘클린업 트리오는’의 윤곽을 그리게

됐다. 장성호-나지완-최희섭으로 이어지는 환상의 좌-우-좌 라인의 폭발력도 가फल 만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니평주기자 mjna@kwangju.co.kr

올림픽 야구 대표팀 귀국 최종전 대만 꺾어

8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야구대표팀이 지난 15일 귀국했다. 대표팀은 7일부터 1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벌어진 최종전에서 캐나다와 6승1패로 동물을 이뤘으나 승자승에서 밀려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초반 압도적인 기량으로 5연승을 달려 참가한 8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본선행을 확정지은 대표팀은 6차전에서 캐나다에 3-4로 패했으나 최종전에서 라이벌 대만을 4-3으로 꺾고 자존심을 회복했다. 선수단은 곧바로 해단식을 갖고 각자 소속팀에 돌아갔다.

오초아 위에 오지영

9언더파 단독선두... 첫 우승 ‘째’

LPGA 마스터카드클래식 2R

미국어자프로골프(LPGA) 투어 2년차 오지영(20)이 생애 첫 우승의 기회를 잡았다. 오지영은 16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 시티 보스케 레알골프장(파72·6천90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마스터카드클래식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다섯 개를 뽑아내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쳐 단독 선두(9언더파 135타)에 나섰다. 전날 선두에 1타 뒤진 공동2위에 올라 난생 처음 인터뷰룸에 초청을 받았던 오지영은 이날도 공식 기자회견장에 불려 나와 유력한 우승 후보로 대접을 받았다. 신지애(20·하이마트), 김승희(20·힐라코리아) 등과 함께 국가대표로 뛰었던 오지영은 2006년 켈리파인스톨을 9위로 합격했으며 신인이던 지난해 삼광랭킹 72위를 차지해 투어카드를 지켰다. 25차례 투어 대회에 출전해 ‘볼10’ 임상이 단 한번 뿐이던 오지영은 오르막 내리막이 삼하고 그린의 부드러운 보스케 레알 골프장과 마음에 속 드다며 ‘신데렐라 탄생’을 예고했다. 아마추어 시절 신지애, 오지영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 선수들과 자주 겨뤘던 청야니(대만)가 3타를 줄여 오지영을 2타차로 추격했다. 최나연(21·SK텔레콤)은 데일리베스트인 6언더파 66타를 뽑아내며 공동4위(4언더파 140타)로 도약, 조건부 출전권이라는 굴레를 벗어난 김희정(28·CJ)이 공동6위(3언더파)에 오른 가운데 양희영(19·삼성전자)과 제인 박(21)은 공동8위(2언더파)에 포진했다. 첫날 78타를 쳐 첫 톱타크 위기에 몰렸던 한희원(30·힐라코리아)은 6타를 줄여 공동13위(이븐파 144타)로 올라섰다. 1라운드에서 76타로 부진해 체면을 구겼던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고국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았지만 2타 밖에 풀이지 못했다. 오초아는 선두에 11타나 뒤진 공동27위(2오버파 146타)에 그쳐 사실상 우승은 어려워졌다.

맥도웰 연장서 웃었다

유럽프로골프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컵

최경주 공동 24위

그레임 맥도웰(북아일랜드)이 한국에서 처음 열린 유럽프로골프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맥도웰은 16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핀크스 골프장(파72·7천34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지브 밀카 싱(인도)과 함께 24언더파 264타를 쳐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연장 3차전에서 버디를 낚아 합박 웃음을 지었다. 맥도웰은 데뷔 해인 2002년 네번째 출전한 유럽프로골프 스칸디나비아 마스터스대에서 우승한 뒤 2004년 이탈리아오픈에 이어 통산 세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삼승은 51만2천달러.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버디 1개, 보기 1개로 타수를 줄이지 못해 7언더파 281타, 공동 2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 처음 출전한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은 3타를 줄여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는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이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14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16일 제주 핀크스골프장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 발렌타인챔피언십 4라운드 경기에서 최경주가 9번홀에서 벵카샷을 하고 있다. 최경주는 공동 24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우즈 공동선두 도약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R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우즈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골프장(파70·7천239야드)에서 열린 대회 3일째 경기에서 보기를 2개 범했지만 버디를 6개를 쏟아내며 4타를 줄여 6언더파 204타가 됐다. 첫날 공동 34위, 2라운드 공동 20위로 야망급 선두와 격차를 좁혀가던 우즈는 이로써 지난 해 이 대회 우승자 비제이 싱(피지) 등 5명과 함께 공동 1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게 됐다. 우즈가 우승할 경우 작년 BMW 챔피언십부터 PGA투어 대회 4개와 이벤트 대회 한번, 그리고 유럽프로골프투어 대회 등에 이

골프·연도 회원권개별 전문기법
특필러 회원권
 저의 ‘특필러 회원권’이 당신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당신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문의: 062-351-0095

이봉주 8위 ... 베이징올림픽 금 ‘비상’

2008 서울국제마라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8·삼성전자)의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봉주는 16일 오전 광화문 ~잠실 종합운동장 간 42.195km 코스로 열린 2008 서울국제마라톤 결 제79회 동아 마라톤대회 남자 자부 엘리트 경기에서 2시간12분27초에 그쳐 전체 8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막판 극적인 역전 드라마로 풀 키 프로프 키루이(케냐·2시간8분29초)를 꺾고 2시간8분04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던 이봉주

는 베이징올림픽 전조전 성격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기록과 순위에서 모두 뒤쳐져 금메달 목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봉주가 부진한 반면 김이용(35·대우자동차판매)이 2시간11분14초로 7위로 골인, 국내 선수 중 좋은 기록을 보였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이봉주와 김이용을 베이징올림픽에 내보낼 국가 대표로 사실상 낙점하고 이후 국제 대회 성적에 따라 1명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2003년 베를린마라톤에서 2시간4분56초로 세계에서 역대 네 번째로 좋은 기록을 세운 우송 0순우 후보로 뽑혔던 새미 코

리트(37)는 30km 지점부터 선두로 나서 여유 있게 페이스를 펼친 끝에 2시간7분32초로 피니시 라인을 가장 먼저 끊었다. 코리트는 우승상금 8만달러를 받았다. 2위는 제이슨 음보테(2시간7분37초), 3위는 에드윈 코멘(2시간7분45초)이 차지하는 등 ‘마라톤 왕국’ 케냐가 1~3위를 휩쓸었다. 여자부에서는 장수정(중국)이 2시간26분11초로 우승, 5년 만에 우승을 탈환했다. 11년 묵은 한국기록(2시간26분12초) 경신에 나선 이은정(삼성전자)은 2시간29분32초로 4위에 머물렀다.

이용대-정재성 결승 진출 스위스오픈배드민턴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희망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성전기) 조가 3개 대회 연속 결승에 진출했다. 세계랭킹 5위인 이용대-정재성 조는 16일(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벌어진 2008 스위스오픈배드민턴 슈퍼시리즈 5대째 남자복식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4위인 말레이시아의 총탄폭-리완와 조를 2-0(21-18 21-19)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이-정 조는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인도네시아의 마르키스 키도-헨드라 세티아완 조와 금메달을 다툰 예정이다.